



Market Index / 6일

코스피지수 ▲ 3178.74 +31.37	코스닥지수 ▲ 969.99 +2.79	유가(WTI, 달러) ▼ 65.63 -0.06	환율(원)	1USD 1144.68 100¥ 1047.04	살매 1105.32 팔매 1011.04	1EUR 1380.07 1CNY 182.43	살매 1326.23 팔매 165.07
---------------------------	-------------------------	------------------------------	-------	------------------------------	--------------------------	-----------------------------	-------------------------

농업통계 제주도·통계청 누가 맞나

올해 마늘 제주도는 1600ha·통계청은 1306ha 월동무의 경우 해마다 1000ha 이상 차이 보여 도 “드론 활용한 품목·면적 확인 기반 구축중”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채소류의 재배면적이 정부 공식 통계기관인 통계청과 제주자치도간 괴리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모든 농업정책이 통계를 기초로 수립된다면 제주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채소류 면적 통계를 품목당 적게는 200~300ha에서 많게는 1000ha 이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인데, 올해 마늘과 양파의 경우 3월 17~4월 8일 농업면적조사 표본조사구(2ha 단위의 조사구 기준으로 도내 마늘 91개, 양파 139개 조사구)를 방문해 실측·목록조사했다. 통계청 조사방식은 주산지 및 비주산지별 가중치를 따로 두지 않아 주산지가 뚜렷한 당근(구좌), 마늘(대정), 월동무(성산) 등 품목별 특색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장과 동떨어진 면적 통계는 현장의 혼란은 물론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정 품목의 재배면적이 평년 대비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할 것이란 통계를 내놓을 경우 가격 하락이나 상승을 점지며 발매기거래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통계청의 마늘·양파 생산량 발표후 전국 양

파의무자조금단체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전수조사 결과와 너무 다르다며 통계청에 문제제기를 한 상태다. 통계청과의 통계 괴리에 대해 제주도도 난처한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대정·한경 2개 지역에 드론을 띄워 마늘·양파 면적을 조사했는데 제주도의 통계랑 거의 비슷했다”며 “제주도 디지털융합과와 협업체를 지고도로 띄워 활용한 장소의 채소류 품목과 면적을 인식가능케 하는 기반을 구축중으로, 내년부터는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관측결과와 통계가 다르다는 민원이 있는게 사실”이라며 “조만간 농식품부와 협의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지난달 하순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제주산 마늘 재배면적은 지난해 2122ha에서 올해 1306ha로 감소해 역대 최저를 나타냈고, 양파는 지난해 955ha에서 올해 880ha로 줄었다. 반면 제주도는 마늘은 지난해 1879ha에서 올해 1600ha로 감소하고, 양파는 지난해 586ha에서 올해 642ha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월동무의 경우 제주도는 2017년 4927ha, 2018년 5232ha, 2019년 4978ha로 밝혔고, 통계청은 같은해 각각 6275ha, 7564ha, 5881ha로 1000ha 이상 차이를 보였다. 당근도 마찬가지로 제주도는 2018년 1323ha, 2019년 1067ha라고 밝힌 반면 통계

우뭇가사리 건조 6일 제주시 구좌읍 중달리 해안가에서 여초계 어린이들이 수확한 우뭇가사리 건조작업을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제주도를 찾은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6일 서귀포시 소재 남원농협 APC에서 하우스온주 출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농협제주지역본부 제공

“농협, 협동조합 역할에 충실해야”

이성희 중앙회장 제주 방문 남원APC 등 현장 경영 행보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취임 후 처음 제주를 찾아 감귤주산지 농협 산지유통센터(APC) 등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5일 오후 제주를 방문해 조천농협 로컬푸드직매장과 제주시농협하나로마트를 둘러본 이 회장은 6일은 서귀포시 소재 남원농협 APC에서 하우스온주 등 감귤 출하상황을 둘러봤다. 또 APC에서 관내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52시간 근무제가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이어 오는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따른 농업별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말 도내 감귤 주산지 5개 농협이 집중 출하기에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연장근로(1주 64시간 이내)를 인가받았지만 올해 4월부터 탄력근로제 단

위기간을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간담회에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인 실의증진과 권익신장에 기여한 위성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을 초청해 감사패를 전달하고, 농성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장은 오후에는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올해 제주농협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제주농협 현안사항 청취, 농축산물의 올바른 유통구조 구축과 디지털 농업 추진을 통해 농업·농촌·농업인이 대우받을 수 있는 발전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농협이 협동조합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제주 현장경영에서 발굴된 아이디어와 의견들을 실천으로 옮겨 농업인과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100년 농협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에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만든다

아라동에 표고버섯 스마트팜 조성·창업교육 중기부, 5년간 구축비와 운영비 18억원 지원

제주시 아라동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장이 조성돼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 지원을 위한 '2021년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에 제주와 충남 태안군 등 3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창업교육, 현장실습 시설, 창업 보육공간 구축을 지원해 발달장애인과 해당 가

족에게 안정적인 근무환경과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 지자체에는 각각 구축비 11억원과 5년간 운영비 7억5000만원(연간 1억5000만원) 등 총 18억5000만원이 지원된다. 중기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경북 안동시, 광주 광산구 두 곳을 선정해 슬로푸드(친환경 농산물 재배·생산)와 스마트팜 특화사업장을 구축중으로 각각 5월과 11월에 개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제주 사업장은 제주시 아라1동 2068㎡ 부지에 기술 습득이 용이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부여하는 표고버섯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창업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표고버섯 재배와 종균 관리, 재배공간을 갖춰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나랑타, 농협 등과 연계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장과 50m 거리에 올해 말 건립 예정인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제주도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과 연계해 체육관, 보건실, 부모자조모임실, 식당도 이용할 수 있다. 문미숙기자

“비정규직 정규직화 농협중앙회가 막아” 협동조합노조 제주지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6일 농협중앙회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이날 농협제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농협과 제주축협 등 지역 농·

축협은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노·사 합의와 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연수 등 정해진 기준·절차에 따라 매년 일정인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고, 양돈농협은 자회사 간접고용 노동자를 직접 고용 승계기로 했다”며 “그런데 농협중앙회가 올해 3월 제정한 단체협약보다 하위규범인 채용준칙과 전산인력관리시스템 관리권을 악용해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래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AA
영양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킨,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팜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약소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한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M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가온시 10월~11월 수확가능
-황금향대조품종(검정)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경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공천, 흥진
카라향, 신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
2-7년생 하구, 팔삭, 세마물, 금귤
당유자, 야마나스, 미나몬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중요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

감귤묘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
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묘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구	2,3,7,8년생
·공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3-20-08

010-2699-2355